

4 마일리지 장학 형평성 논란

영어 항목 마일리지 장학 못 받는 국제대학 학생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마일리지 장학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학교 단과대학 중 유일하게 국제대학만 영어 항목에 대한 마일리지 장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장학팀이 실시하는 마일리지 장학은 우리학교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이 중 국제대학에서 논란이 된 것은 공인외국어능력 시험 우수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제화 역량 분야 중 영어 항목이다.

국제캠 학생들은 토익 등의 영어능력 시험 점수에 따라 장학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캠 마일리지 장학 규정에 따르면 국제대학은 ‘대학 특성상’ 국제화 역량 영어 항목에 대한 장학 수령이 제한된다. 국제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우리학교 단과대학 중 유일하게 영어특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항목에 대한 마일리지 장학 규정을 두고 국제대학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대학 안에서도 영어특기자 출신에 대한 장학 제한은 이해하지만 정시 등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전형의 경우 국제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동일하게 모집과정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국제대



장학팀은 마일리지 장학에 대해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학생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학주보 DB)

학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 비해 월등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 A 씨는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영어특기자 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영어 실력이 동일시되는 것이 문제”라며 “영어 실력은 영어 자체에 들인 시간만큼 향상되고 국제학과 학생들은 영어에 더 노출되는 환경에 있을 뿐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학시험 점수도 타 과 학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국제학과는 영어 관련 장학금을 받을 수 없

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있어온 불만”이라고 말했다.

국제대학 내 영어특기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장학제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제대학 입학정원 중 영어특기자(실기우수자전형 중 글로벌-영어)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폭 감소해 2021학년도에 경우 약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2학년도부터는 영어특기자 전형이 완전 폐지된다. 영어특기자 전형을 이유로 영어 관련 장학을 제한하는 규정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등 영어학을 전공하는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영어학을 전공하는 학과들은 전공 특성상 영어 장학 수령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마일리지 장학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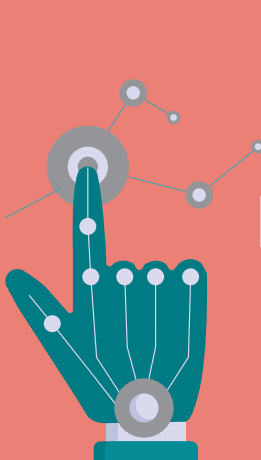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영어영문학과도 국제캠의 마일리지 장학과 유사하게 실시되는 서울캠의 모자이크 장학 영어 항목 수령이 가능하다. 영어학을 전공하는 학과들이 전공 특성상 영어 장학 취득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대학에만 영어 항목에

대한 장학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윤재(국제학 2020) 씨는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과는 영어라는 언어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학과”라며 “영어와 관련된 모든 학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학과를 특정해 장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대학은 완성된 학생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기에 실력과 관련된 장학금은 개인의 실력만을 평가해야 한다”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에 따른 장학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대학의 목적에 모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장학팀은 국제대학의 영어 항목에 대한 마일리지 장학 제한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는 처음 실시할 때 각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했다”며 “장학 신설 당시 국제대학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국제대학 학생과 행정실인 만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공문을 보내주면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학에서 먼저 요청해주면 검토 후 장학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대학 학생회는 “공식 문의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직 문의를 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도 행정실과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21-2학기  
미래교수전략  
II-(3)

제목: 비대면 수업에서의 저작권  
강사: 변용완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부 내용

차시	차시명	시간
1	원격교육과 저작권	39분
2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33분
3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	31분
4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사례	37분

신청기간 8월 23일(월) ~ 9월 10일(금)  
수강기간 신청 다음날 ~ 9월 24일(금)  
수강방법 및 유의사항

가) e-campus 로그인 및 초대 수락 후, '[2021-2] 미래교수전략 II-(3)' 수강  
나) 4개 차시를 모두 수강하신 경우에 한해 교육업적점수 10점 부여  
다) 참여확인서는 특강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 가능  
라) 본 특강은 2021-1학기에 진행된 미래교수전략 II-(3)과 동일한 특강임

